“전문인력 육성… 오감 만족 축제로 승부 걸어야”

■ 주제발표 1 송태갑 ‘융합의 시대-미래 지역축제의 역할’

“축제는 교류·전시·볼거리 등 문화 융복합물”

송태갑 전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은 13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에서 ‘융합의 시대-미래 지역축제의 역할’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축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축제 계획과 축제행사(이벤트)기획의 구분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정신 ▲감성적 융합 확대 등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한 역할을 제시했다.

송 실장은 “축제는 교류·전시·공연·경연·체험·볼거리·먹거리·문화행사·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가 융복합된 결과물”이라면서 “시각과 후각, 청각, 촉각, 미각 등 오감각을 만족시키고, 감성적 융합을 접목하는 축제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융복합 시대에서는 축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산만하고, 양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연예인 또는 예술문화단체 등 외부의 힘이나 쇼에 의지하게 되고, 축제의 본질마저 훼손돼 실패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Master Plan)없이 매년 축제행사기획을 사설 기획사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행사주체가 직접 만들고, 행사기획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그 역할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송 실장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하면 멀리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며 “최근 지역축제를 보면 그 지역민끼리 어울려서 즐기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지역주민이 주인(주체)이 돼 외지 방문객을 맞이하는 축제만이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주제발표 2 나경수-‘지역축제 문제점과 미래형 축제모델’

“별정직 전문가 채용 책임 시스템 마련 시급”

전남대 나경수 교수는 13일 열린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에서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미래형 축제모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광주·전남지역 향토축제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바로 거의 모든 행사가 행정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물론 지역축제에서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질 경우 창조성이 상실된 수동적인 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행정기관의 특성상 축제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축제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축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를 위해 “별정직으로 축제행정 전문가를 채용해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전문인력이 축제를 주관할 경우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갖춘 축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 위주의 축제로 인해 시·군·구간, 즉 행정단위별 이기주의와 단절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병폐인 지역별 폐쇄주의가 그 원인으로, 이를 깨고 이웃 자치단체 축제와 상호 보완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를 이뤄낸다면 성공적인 축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축제와 관련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

종합토론 요약

사회=이건철원장

13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일보사 주최로 열린 ‘성공한 지역축제 아카데미’에서는 광주·전남 각 시군구 축제담당 공무원·축제 기획사 대표·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난립한 지역축제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염방렬 광주시 관광진흥과장,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송진희 호남대 교수,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등이 참석해 1시간 30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서는 현장경험을 근거로 한 생생한 경험담과 질문이 쏟아졌다.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광주일보사 주최로 13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2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에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방렬 광주시 관광진흥과장,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좌장을 맡은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송진희 호남대 교수,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무원들이 치르는 축제 이젠 그만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축제는 마을단위에서 개최해서 점차 커나가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진행할 만한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관(행정기관) 주도로 축제들이 이뤄지고 있고, 또다시 축제대행사들이 축제를 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관 주도로 축제가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분야부터 맡긴다면 5년 후, 또는 10년 후면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축제가 끝나면 축제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려한다. 축제 업무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또 다음해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축제가 끝나자마자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다음 축제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가자 수 집착 말고 즐기는 문화를

▲염방렬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축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성향이 있다. 하지만,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축제와 지역 경제발전을 연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축제 참가자 숫자와 수익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축제 전문가나 문광부 등에서는 즐기는 축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난장판 속에서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축제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솔직히 전국 축제 관람객 숫자를 보면 대부분 부풀려 지는 게 사실이다. 축제가 지역주민과 참여자 위주로 가야하는 데, 실적위주로 가다 보니 많은 폐단이 생기고 있다.

광주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축제 기획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 등이다.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결국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리가 될 것이다. 성공한 축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 트렌드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축제 끝나면 인사 이동…전문성 없다

▲송진희 호남대 교수=사실 축제가 행정기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축제를 할 때도 공무원이 가장 고생하고. 끝나고 나서도 공무원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축제의 전문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불과 1년 전에 개최된 축제에 대한 심벌이나 포스터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이름을 걸고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한다. 또 현재까지 지역축제의 희망은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순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단체장들은 축제 전문 담당 계약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외부 축제 전문가의 영입 등이 고민해야 한다.

민선 단체장 성과주의 버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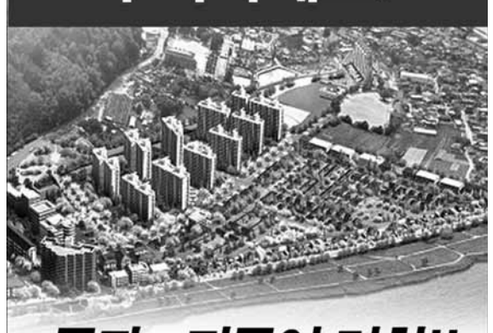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지역축제를 주제로 한 오늘 아카데미의 키워드는 자긍심과 품격, 지역성 등 세 가지다. 우선 지역 축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한 듯 해 죄송하다. 자치단체장들이 성과주의에 얽매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최근 광주 비엔날레가 폐막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행사라는 것이다. 문화부 기자들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게 비엔날레 작품들이다. 반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행사가 끝나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 곁에 남아있다 보니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진다. 이런 것은 배워야 한다. 축제도 마찬가지다.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축제와 관련된 소규모 행사 등을 통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박진표기자lucky@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화순,담양,나주,장성,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밤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가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장성 백양사입구 모텔 및 식당(성업중)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자동차검사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오치동 3층신축상가주택 매11억(융,보5억5천포함)월수6백만
*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전200P,창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홍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4억 월수 250만(안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읍,덕진리 대로변,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철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광주,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첨단지구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 가 임 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상가/원룸 매매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 (100p)
▶건축면적 : 737.19㎡ (223p)
▶매매가 7억 4천(융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원, 월세 794만원 융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9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율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병원부근
▶토지 89P 건물 233P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4억9천 융자 2억3천 5백 실투자액 2억5천5백
문 의 : 011-684-3886

가 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염전 / 양어장 (폐염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